

파키스탄 진출전략 보고서

I.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파키스탄은 인구 약 1억8천만, 한반도의 3배 이상에 이르는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잠재 유망시장. 소득수준이 낮고 전력부족 및 사회 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황이나 각종 플랜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며 관련 기계, 설비, 부품 및 산업 원재료 수출과 프로젝트 진출 잠재력이 큰 시장

□ 서남아의 두 번째 경제규모, 인구 1억8천만의 젊은 소비시장

○ 서남아 두 번째 규모 시장

- 파키스탄은 인도에 이어 GDP 및 교역량 면에서 서남아 두 번째 시장.
- 파키스탄 경제는 2007년까지 연간 7%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IMF 구제금융 등 일련의 사태를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
- IMF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율이 2013년 3.6%에 이어 2014년 2.5%로 예측 되는 등 서남아 국가 중 최저의 GDP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구성된 새 정부는 정부 기업 민영화를 추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긴 여유 자금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입하려고 계획하는 등 어려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 중

파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파키스탄 (FY13기준)
면적(천km ²)	796
인구(백만명)	184.35
GDP(억\$)	2,310
1인당GDP(\$)	1,342
교역량 (억\$)	650.21 (수출: 247.95/수입: 402.26)
*GDP성장률 (%)	3.6
외국인직접투자(억\$)	14.47

자료원 : *IMF, 파키스탄 BOI

- 1억8천4백만 인구의 잠재적 유망 소비시장임. 전체 인구의 45% 내외가 10대, 20대로 구성되어 있어 IT 분야 등 새로운 문화와 제품을 빠르게 수용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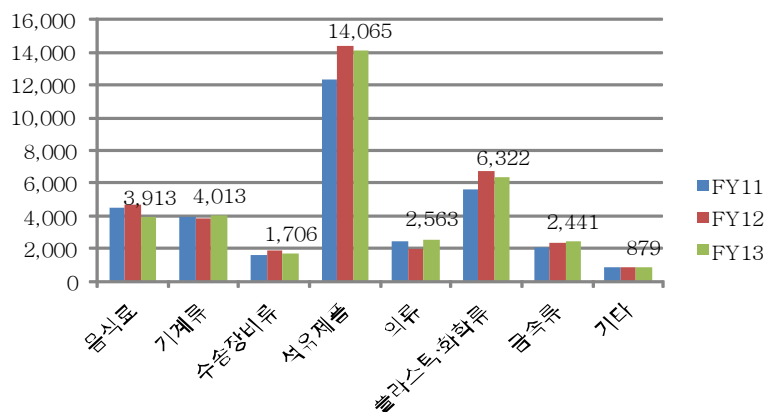
□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정부예산 → 높은 대외 원조·투자 의존도

- 정부 재정부족 현상 심화
 - 파키스탄 철도청이나, 파키스탄 항공(PIA), 전력청과 같은 주요 기관은 운용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연간 50억달러 이상 지출 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 전력부족에 따른 발전·송배전 설비 확충 계획
 - 열악한 대중교통, 철도는 기관차 고장(80%)과 연료 부족으로 운행 애로
 - 가스 및 용수 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관련 설비 확충 요구
 - 산적한 인프라개발·확충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정부 예산 때문에 국제기구의 차관이나 외국의 구호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국제원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BOT, 민자발전 형태 추진

□ 산업재 위주의 수입시장

- 파키스탄은 2013년 회계년도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원유 및 석유관련 제품이 전체 수입액의 34.9%, 기계류 및 수송 장비가 14.2%, 화학제품이 15.7%, 음식료품 관련 제품이 9.7%, 고무, 원목 등 기타 제품군 수입이 2.1% 점유
- 따라서 파키스탄은 산업재 제품의 수입 비율이 64.8%에 이르는 등 소비재 시장보다는 산업재 시장이 성격이 강함

품목군별 수입비중 (단위: 백만달러)



자료원 : State Bank of Pakistan (FY13 수치만표시)

□ 치열한 가격중심 시장

- 파키스탄은 철저한 가격 중심의 시장으로, 품질 대비 가격 보다는 철저하게 가격의 높낮이가 구매결정의 핵심 기준임
 - 산업재의 경우, 저가 중국제품의 내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탈 중국 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바이어들은 중국 제품의 가격에 비 중국 제품의 품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가격이 구매결정의 핵심 기준.
- ⇒ 높은 관세율로 바이어들의 언더벨류 요구도 관행화 되어 있음.

□ 아시아의 중동

- 무슬림 국가로 무역과 투자는 미국, 중국, 유럽에 높은 의존도 지리적으로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슬람문화권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는 시장.
- 상당량의 교역이 두바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부호 및 사업가들은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두바이나 인근 중동국가에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구리, 석탄 등 매장량 풍부하나 개발 지연

- 발로치스탄 주 Raco-Diq 지역의 구리 및 금 매장량 풍부
 - TCC사에서 개발키로 하였으나 지방정부와의 수익분배 등 마찰로 지연
- 신드주 Thar지역 석탄 매장량 풍부
 - 중국 업체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석탄 품질이 낮고 파키스탄 정부가 현지에서 석탄발전과 연계토록 요구하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발을 위한 철도,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상당량의 교역이 두바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부호 및 사업가들은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두바이나 인근 중동국가에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기회 및 위협요인(SWOT 분석)

강점(S)	약점(W)
○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 노동 시장의 유연성 ○ 아시아 및 중동 시장 접근성 양호, 영어 인력 사용 용이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기술력 저하 및 품질의 일관성 결여 ○ 테러 증가 및 치안 불안 ○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수동적인 인력 및 고급인력 부족
기회(O)	위험(T)
○ 중동 지역과 인도, 중국을 잇는 지정학적 교두보 시장 확보가능 ○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기계/설비의 현대화 작업 용이 ○ 최근 정부의 Infra 집중 투자로 사업기회 확대 ○ 한국 제품에 대한 품질 이미지 우수	○ 품질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시장 상실 ○ 인프라 열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 정치 불안에 따른 바이어 이탈 ○ 기술력 저하로 저 부가가치 제품 치중에 따른 수익 구조 악화 ○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및 최근의 FTA 체결로 중국 제품의 시장 유입 가속화 심각한 전력난

II. '15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정부기업 민영화 : 파키스탄 정부, 국가 공공 자산 매각 계획

- 수익성 높은 알짜 기업 등 매각 고려
 - 파키스탄 정부는 공공 법인 부문에 효율성을 도입하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손실을 낸 법인뿐만 아니라 이익을 내는 법인도 포함해 정부기업들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 계획을 세움.
 - 파키스탄 정부의 야심찬 민영화 프로그램에는 수익성이 높은 OGDCL(Oil and Gas Development Company Limited), PSO(Pakistan State Oil Company Limited), PARCO(Pak Arab Refinery Limited)와 같은 거대 기업도 포함해 최소 6개 이상의 국가소유 기업의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을 위해 매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요인을 제거할 계획

□ 민영화 필요성

- 외환보유고 확충
 - 정부 민영화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보유자산 매각으로 크게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외환보유액은 지난 몇 년 사이 32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듦. 가까스로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지출하고 있음. 지난달 파키스탄은 IMF에서 정부 보유공기업의 민영화 조건으로 67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음.

□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의 노력

-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 부양책
 - 파키스탄 정부는 정부 보유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5000억 루피(약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 정부 보유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 생긴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사업 등에 재배정할 계획임. 파키스탄은 현재 과거 정부에서 민영화한 Pak American Fertilizer Limited만 민영화된 상태임

Ⅲ. 파키스탄시장 진출전략

□ 중장기 진출전략

목 표

파키스탄 프로젝트 및 상품 시장 진출

추진전략

- ① 한국 기업 진출 기반 조성
- ② 프로젝트 수주 및 산업재 수출 기회 확대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① 전력 프로젝트
시장 진출

- ❑ 전력 포럼 개최
- ❑ 전력 기자재 로드쇼 개최

② 주력 품목
마케팅 강화

- ❑ 섬유전 등 현지 전시회 참가
- ❑ CSR을 통한 마케팅

【별첨】

가. 관할지 경제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파키스탄 거시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08/09	09/10	10/11	11/12	12/13
경상 GDP	억 달러	1,666	1,701	1,900	2,068	2142
GDP 실질성장률	%	0.4	2.6	3.7	4.4	3.6
인 구	백만 명	163.8	173.5	177.1	180.7	184.4
1인당 GDP	달러	1,026	1,072	1,275	1,323	1,368
수 입	억 달러	348	347	404	449	395
수 출	억 달러	177	193	248	236	237
무역 수지	억 달러	-171	-154	-156	-213	-159
경상 수지	억 달러	-93	-35	2	-46.58	-16.54
외환보유고	억 달러	140	179	209	147	123
대외부채	억 달러	511	548	593	595	609
총 재정 적자	% of GDP	5.2	6.2	6.5	6.8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17.0	10.1	13.7	11.0	7.7
산업생산증가율	%	-0.1	8.3	-0.1	3.1	3.4
환 율(평균)	RS/불	79.1	86.21	90.80	88.7	96.5

○ 관할지 경제동향

-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외환사정이 극히 좋지 못해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고 환율이 인상되는 추세이며 파키스탄 정부는 외환부족으로 인해 2013년 9월 또다시 IMF로부터 67억 달러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은 대부분 기존 차입금 상환에 쓰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외환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역적자가 심화되었기 때문임. 파키스탄 대외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간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는 212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유래 없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

-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248억 달러) 대비 약 4% 줄어든 236억 4천만 달러에 머문 반면, 수입은 전년(404억 달러) 대비 약 11% 증가한 449억 달러에 달했음. 2013 회계연도에도 수출과 수입간 무역수지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어 15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한편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공여조건에 따라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파키스탄 정부는 2013년 9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30여개 금융, 오일, 가스, 발전, 운송관련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중앙정부 산하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민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영화 작업을 진행중임.
- 파키스탄의 국영기업은 대부분이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매년 5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적자가 심한 파키스탄 항공(PIA), 파키스탄 철강(Pakistan Steel Mill) 등은 최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음.

(2)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

○ 파키스탄 산업구조

- 20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산업 비중은 23.3%, 2차산업 비중은 22.7%, 3차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임. 특히 1차산업 중 농림축산업분야는 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 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면화 생산량이 많아 파키스탄 섬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

파키스탄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단위: %)

회계연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농림축산업	21.5	20.9	21.0	21.0
광산, 자원	2.4	2.4	2.4	2.3
일반 제조업	18.5	18.7	18.5	18.6
건설	2.3	2.5	2.0	2.1
전기, 가스서비스	2.0	2.2	2.1	2.0
물류, 통신	10.2	10.0	10.7	10.7
도,소매	17.1	17.2	17.1	17.0
금융,보험	5.4	4.5	4.6	4.6
부동산	2.7	2.7	2.7	2.7
방위산업, 공공분야	6.3	6.6	6.6	6.6
기타 서비스	11.6	12.3	12.3	12.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Economic Survey of Pakistan 2012/13

○ 섬유 산업

-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인구 1억 8천만 명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 산업이 발달해 있음.
- 파키스탄은 아시아 8위의 섬유제품 수출국으로 섬유산업은 GDP의 9.5%를 점유함. 고용인원은 1천5백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4천9백만 명의 30%에 달함.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24개의 대규모 방적공장과 425개의 소규모 방적공장이 있음. 카라치 증시에 상장된 572개 기업 중 166개 기업이 섬유관련업종임
- 이에 따라 제조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섬유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 파 키스탄은 정부 차원에서 섬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정부 지원과 풍부한 원자재, 저가의 노동력 등 유리한 산업 환경을 이용하여 파키스탄은 그간 중저가 면섬유 제품에서 강세를 보임.
- 그러나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품질 문제로 인하여 시장 점유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에서도 품질 향상 없이는 쿼터 폐지 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각종 지원과 관세 등 세금 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이의 성과로 지난 수 년간 섬유 기계의 현대화 작업이 급속히 진척되었음.
- 따라서 과거에 비해 품질도 상당 폭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부자재, 사류, 원단, 완제품 섬유제품의 전반에 걸쳐 면섬유 제품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Spinning, Knitting 분야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음.
- Weaving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섬유쿼터 폐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제조 업체 들의 설비교체 및 증설을 지원함에 따라 지속적인 기계설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의류 분야는 현지 생산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품질 관리 및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쿼터 폐지 시 합병,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EU는 2014년 1월부터 파키스탄에 GSP+ 지위를 부여하였음. EU 집행위원회가 사전 평가한 바에 따르면 GSP+ 지위를 부여로 파키스탄의 수출은 섬유, 가죽 등의 제품 수출이 5.74억 유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파키스탄 섬유산업계는 GSP+ 혜택으로 EU에 대한 섬유제품 수출만도 첫째에 6.5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 가전 산업

- 파키스탄의 가전 산업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과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한 현지 생산 형태를 띠고 있으며 TV, 에어컨, 냉장고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음.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파키스탄 경제가 고성장을 실현했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났으며 고급화되었음. 따라서 현지 생산 업체들은 사양을 과거에 비해 고급화 하였으며 일부는 최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였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개년동안 판매된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연중 무더운 날씨를 반영하여 냉장, 냉동고의 판매비중이 2012년 주요 4개품목중 57.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 가전제품 판매 현황

상품	판매량(단위: 대수)			2012년 판매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	
TV	343,000	440,000	268,000	14.5%
냉장·냉동고	1,066,000	1,040,000	1,062,000	57.5%
에어컨	340,000	249,000	240,000	13%
세탁기	250,000	275,000	275,000	15%
합계	1,999,000	2,004,000	1,845,000	100%

- 현지 생산 기업들은 한국의 LG, 삼성을 포함하여 PHILIPS, PEL, ORION, DAWLANCE 등 여러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산도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음. 현재 시장점유율은 한국산의 점유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중국산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TV

- 과거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성행했으나 현지 생산 공장이 늘어나고 정부의 밀수 단절 의지를 통하여 상당 부분 근절된 것으로 추정됨. 다국적 기업 일부가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LG, 삼성도 현지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2012년 기준 약 33%로 높은편임.

2012년 TV 판매현황

판매순위	브랜드명	판매대수	비중(%)
1	Nobel	90,000	33.5
2	LG	50,000	18.6
3	Samsung	40,000	14.9
4	Haier	20,000	7.5
5	Dawlance	20,000	7.5
6	기타	48,000	18
합계		268,000	100

○ 냉장고, 냉동고

- 시장 규모는 연간 10 %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냉동고는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냉장고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거래됨. 총 수요는 연간 약 100만 대로 자국 내 생산 70 %, 수입 25%, 밀수 약 5 %로 추정되며 현지 유통 브랜드로는 Philips, Dawlance, PEL[Pak Electron Ltd], Waves, LG, Samsung, Candy 등이 있음. 냉장고의 경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제품의 판매비중은 높지 않음.

2012년 냉장고,냉동고 판매현황

판매순위	브랜드명	판매대수	비중(%)
1	Dawlance	300,000	28.2
2	PEL	260,000	24.5
3	Waves	250,000	23.5
4	Haier	140,000	13.3
5	기타	112,000	10.5
합계		1,062,000	100

○ 에어컨

-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자국 생산이 약 22만 대, 밀반입이 3만 대 가량으로 추정됨. 그 동안 저가의 창틀형 에어컨(Window air-conditioners)이 독립형 에어컨(the split system)보다 많이 팔렸으나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독립형으로 전환 추세에 있음. LG가 현지 생산을 시작한 후 에어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만8천대를 팔아 시장점유율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2012년 에어컨 판매현황

판매순위	브랜드명	판매대수	비중(%)
1	미쓰비시	70,000	29.2
2	PEL	55,000	22.9
3	Dawlance	35,000	14.6
4	Haier	30,000	12.5
5	LG	28,000	11.7
6	기타	22,000	9.1
합계		240,000	100

○ 오디오

- 시장 규모는 매년 5%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의 50% 정도는 파키스탄 자국 생산 조립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질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밀수 시장도 성행하여 어디에서든 유명 브랜드의 오디오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수입 규모 등은 현재 밀수입 규모가 너무 커서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현지에서는 PIONEER, AIWA, KENWOOD, SANYO, SONY, PHILIPS, LG, MARANTZ, TECHNICS, SHARPS, PANASONIC등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세탁기

-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 대 내외로 자국 생산이 70%, 수입이 15%, 밀수가 5% 정도로 추정됨. 세탁기의 경우 한국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음.

2012년 세탁기 판매현황

판매순위	브랜드명	판매대수	비중(%)
1	Super Asia	150,000	54.5
2	Dawlance	75,000	27.3
3	Haier	25,000	9.1
4	기타	25,000	9.1
합계		275,000	100

○ 자동차 산업

- 파키스탄의 자동차 제조사로는 승용차의 경우 혼다, 도요타, 스즈키, 닛산, 다이하츠 등이 있고, 트럭부문은 히노, 니산, 동평, 이수즈가 생산을 하고 있음. 버스 부문은 히노, 니산, 동광, 마스터, 대우파키스탄, 이수즈 등이 생산을 하고 있으며 2륜차 부문은 혼다, 야마하, 스즈키, 소랍, 칭치, 라비, 사즈가 등이 있음.
- 2007년 말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 전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자동차 시장의 호황과 정부의 일관된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해왔음.
- 한편 2007/2008 회계 연도의 승용차 판매는 정치 불안 및 금융 위기의 여파로 06/07년 대비 7.5% 감소하였고 2008/09연도에는 전년대비 47%가 감소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대폭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08/09년 이후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판매량이 41% 증가했고 2009/10 년도에는 승용차 판매는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트럭, Jeef/LCV 의 판매는 크게 감소하였음. 2012/13년도에는 승용차 판매가 34% 감소, 트럭 판매가 2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줄어든 양상임.
- 승용차의 경우 도요타의 코롤라(1300~1600CC) 모델이 전체 판매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800CC의 Suzuki Mehran 이 약 22%, Suzuki Bolan이 약 14%, 1000cc의 Suzuki Khyber/Cultus 가 약 8%, Suzuki Alto가 약10% 등 소형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파키스탄 자동차 생산/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09/10	10/11	11/12	12/13	전년동기 증감
승용차	생산	121,647	133,972	154,255	104,600	-32.1
	판매	123,957	127,944	157,325	103,466	-34.2
트럭	생산	3,425	2,901	2,597	1,914	-26.2
	판매	3,620	2,940	2,394	1,767	-26.1
버스	생산	628	490	568	586	3.1
	판매	657	515	609	543	-10.8
Jeef/LCV	생산	1,172	883	451	776	72.0
	판매	1,201	807	342	682	99.4
픽업/LCV	생산	15,768	19,142	20,929	15,606	-25.4
	판매	16,496	17,746	21,472	14,644	-31.7
트랙터	생산	71,607	70,770	48,120	45,007	-6.4
	판매	71,512	69,203	49,745	45,798	-7.9

오토바이	생산	736,861	838,550	828,576	799,829	-3.46
	판매	737,759	835,455	829,893	801,004	-3.4

자료: Pakistan 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 정보통신 산업

- 파키스탄의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가 2011년말 179만명 돌파하였음. 2011년 10월 인터넷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광대역 통신망 수요도 크게 늘어난 것임.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가입자수가 6만5천명에 달했음.
- 최근 파키스탄 통신국(PTA : Pakistan Telecommunication Authorit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SL 가입자는 792,397 명, WiMAX 인터넷 사용자는 459,790명으로 증가했으며 HFC(Hybrid Fibre Cable) 사용자는 37,491명, FTTH(Fibre To The Home) 가입자는 7,215 명을 기록했다. DSL 가입자가 전체 44%를 차지하였으며 WiMAX 사용자는 28%를 차지함.
- 파키스탄의 3G 네트워크는 점차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광대역 통신 가입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파키스탄에는 50개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으며 이중 PTCL, Wateen, Wi-Tribe, Qubee, Link Dot Net, Infinity, Comsats 등 10개사가 광대역 서비스망을 제공함.
- 파키스탄의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는 2011년 1월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임. 최근 인터넷 설치 및 사용비용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6개월 전만 해도 설치비용이 무선은 1,000루피, 유선은 2,600루피 정도였으나 현재는 1,000루피 이내이며 사용료는 4Mbps 기준으로 4,000루피에서 2000루피 수준으로 인하되었음. 따라서 1인당 GDP가 1,350달러에 불과한 낮은 소득수준과 50%에 달하는 높은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는 당분간 급증할 전망이다.

□ 최근 새롭게 수립된 파키스탄 무역정책

○ 향후 파키스탄의 무역정책

- 2013~2015년에 걸친 앞으로 3년간의 전략적 무역정책 기본골격(Strategic trade policy framework (STPF) 2013-15)임.

- STPE의 전체적인 목적은 수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제조업자 또는 제품 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또한 정부, 산업, 시민사회, 기증자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파키스탄의 수출강화정책

- 섬유류를 포함한 전통적 수출품 및 의약품을 비롯해 수출 다양화를 위한 대상 품목에 인센티브 제공
- 통관의 원활화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세관 추가 설치 및 통관 무역 금지대상품목 조정 협의 (대 아프가니스탄 수출 증명에 관한 통관 절차 개선)
-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카라치, 라호르에 무역 전시장 건설
- 유기재배한 목화, 대리석, 보석 광물류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 경제성장 우선 정책
 - 파키스탄 국민 구성을 보면 50% 이상이 20대일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많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일부 상류층·중산층을 제외하고 구매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젊은 노동력이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음. 매년 증가하는 젊은 노동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경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무사안일과 처리 지연이 빈번한 정부 부문을 개혁하고 낙후된 공공 서비스 체계에 전문적인 운영 기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무역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타겟
 -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을 통해 상품 간 거래 촉진, 외국인 투자 촉진, 운송부문 비용 절감, 금융 지원, 인근 국가와의 지역 무역 촉진 등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책 목표화함.

<무역정책을 통한 주요 타깃>

- 1) 수출기반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수입 및 기계류 거래 2% 향상
- 2) 업선된 수출 분야의 수출 금융 계획에 1.5% 지원
- 3) 파키스탄 수출업자를 위해 비용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운송 화물 등에 대해 운송화물 비용을 3%대로 안정
- 4)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처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 주고 수출입은행을 설립함.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은 수출입은행은 수출 신용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신용이나 수출 신용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5)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의 지역 무역 추진
- 6) 파키스탄 GDP의 55%에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수출 개발 위원회 설립 (그러나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출은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7) 수출산업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특별 경제 구역 확립
- 8) 가죽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가죽 수출촉진위원회 설립
- 9) 발루치스탄, 길깃 등지의 과일, 야채, 육류, 대추류 등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50% 비용 보조 공장, 기계의 가공 부족으로 인해 과일, 야채, 육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FATA & KPK 설립
- 10) 쌀 등 곡식 가공과 관련된 연구소 업그레이드, 쌀은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임. (그러나 대부분의 생산품이 낮은 품질로 생산되고 있음)
- 11) 해외에서 활동 중인 파키스탄 건설 회사 촉진
- 12) 상공부 및 TDAP 하에서 운용 중인 교육 및 상품 개발 연구소 활동 강화. 이는 이 기관이 파키스탄 산업의 더 나은 인적 자원 및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13) 현지 타이어 산업 보호 및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타이어 스크랩 사용
- 14) 위험하지 않은 플라스틱 스크랩의 수입 규제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1) 수출입 동향

○ 대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역량(수출입)은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파키스탄 정정불안과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감소

- 2013년도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은 8억1천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하였고 수입은 5억2천2백만 달러로 32.7%가 감소
- 무역수지는, 2013년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은 늘지 않는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흑자 폭이 크게 증가. 2010년 3억8천1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이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여 2011년도 8천1백만 달러, 2012년도 7천1백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 2013년도 2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연도	무역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3	1,341	819	△3.3	522	△32.7	297
2012	1,623	847	3.37	776	5.29	71
2011	1,555	818	4.8	737	84.4	81
2010	1,180	780	7	399	4.6	381
2009	1,111	729	△13.1	382	△39.4	347
2008	1,470	839	23.8	631	28.6	208
2007	1,168	678	0.7	490	44	188
2006	1,014	673	1.7	341	8	332
2005	978	662	12	316	12.5	346
2004	870	590	32.1	280	21.3	310
2003	678	447	10.4	231	△13.3	216

자료: KITA 무역통계, World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2013년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계류, 강철제품, 플라스틱, 의약품, 유기화학물 등이 있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 감소한 8.19억 달러를 기록함
- 유기화학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기계류, 강철스틸, 플라스틱, 의약품 등의 수출은 감소
 - 수출 급증 품목 : 유기화학물(45.9%), 전자기기류(42.3%)
 - 수출 급감 품목 : 기계류(-49.0%), 고무(-20.2), 기타강철스틸(-19.6%)

대(對) 파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불, %)

순위	품목코드 (2HS)	품목명	2011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19	5.0	847	3.37	819	-3.3
1	84	기계류	73.64	21.6	113.35	53.92	57.72	-49.0
2	72	강철스틸	126.43	63.6	106.84	-15.5	100.1	-6.2
3	39	플라스틱	102.52	3.0	102.13	-0.37	96.1	-5.8
4	30	의약품	49.96	6.52	72.45	45.03	64.3	-11.2
5	29	유기화합물	52.61	26.8	58.19	10.61	84.9	45.9
6	27	석유제품	47.18	-41.2	48.06	1.86	53.1	10.6
7	55	인조섬유	62.12	26.5	44.60	-28.21	41.7	-6.2
8	85	전자기기류	52.79	18.1	40.12	-24.01	57.1	42.3
9	40	고무	34.92	41.6	37.98	8.77	30.2	-20.2
10	32	염료	30.54	-11.7	31.66	3.67	35.8	13.2
11	63	기타직물	19.20	5.5	24.37	26.93	22.7	-6.8
12	87	차량	22.31	-18.5	20.52	-8.04	22.2	8.3
13	73	기타강철스틸	8.57	-52.9	16.15	88.38	12.9	-19.6
14	90	의료기기	8.64	-1.1	14.61	69.13	11.0	-24.1
15	48	종이류	17.49	88.8	14.16	-19.04	9.8	-30.7
16	54	필라멘트	17.86	2.4	10.45	-41.51	7.7	-25.9
17	38	화학제품	11.87	57.1	9.67	-18.54	17.5	81.5
18	59	직물류	11.96	5.6	9.66	-19.26	9.7	0.7
19	60	니트류	4.82	-43.6	8.61	78.71	7.7	-9.9
20	28	기타화학품	8.49	-20.0	8.36	-1.46	9.7	16.7

자료: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크게 석유제품, 천연섬유사, 기호식품, 구리 등이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7% 감소한 5.22 억 달러를 기록
- 수입 급증 품목 : 비금속광물(28.5%), 니트류(35.2%), 기타곡물(82.2%)
- 수입 급감 품목 : 석유제품(-54.6%), 천연섬유사(-17.4%), 구리(-33.1)

대(對) 파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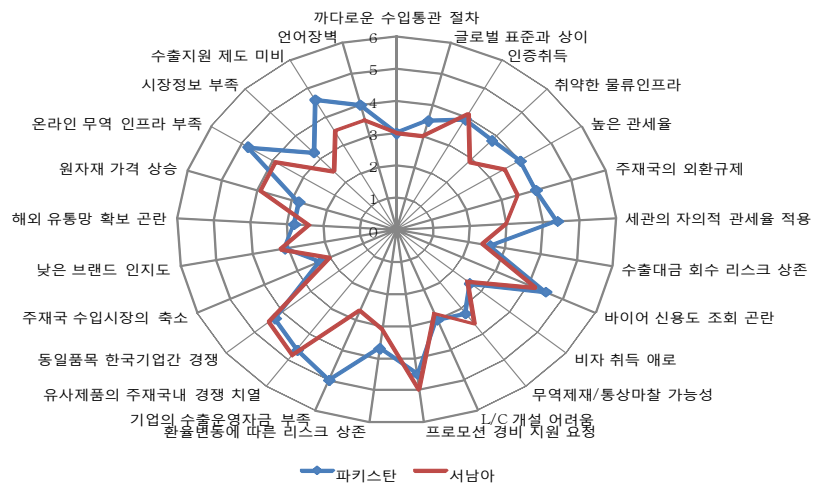
순위	품목 코드 (2HS)	품목명	2011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37	84.4	775	5.29	522	-32.7
1	27	석유제품	305.15	101.9	394.80	29.38	178.9	-54.6
2	52	천연섬유사	208.07	110.1	146.70	-29.5	121.0	-17.4
3	22	기호식품	43.52	207.1	71.94	65.3	71.1	-1.1
4	74	구리	75.32	50.0	63.20	-16.09	42.2	-33.1
5	41	가죽	46.08	24.3	34.34	-25.48	31.7	-7.7
6	03	수산물	18.30	5.17	18.47	0.96	19.3	4.5
7	25	비금속광물	6.53	310.6	7.80	19.51	10.0	28.5
8	95	운동기구	2.93	84.2	4.95	69.13	5.6	13.8

9	62	면의류	3.00	10.7	3.89	29.84	4.3	12.8
10	61	니트의류	2.05	34.8	3.38	64.52	4.5	35.2
11	90	의료장비	2.74	11.8	3.17	15.72	3.0	-4.5
12	12	기타곡물	0.59	-35.8	3.12	431.46	5.6	82.2
13	55	인조섬유	3.36	55.5	2.58	-23.13	2.8	11.9
14	40	고무제품	2.86	97.2	2.47	-13.63	2.4	-2.3
15	13	기타농산물	0.71	97.2	2.24	217.18	0.9	-56.7
16	78	납	0.00	0.0	1.73	0	0.8	-48.8
17	68	시멘트등	1.46	69.7	1.57	7.42	1.3	-11.3
18	82	기타기계	1.53	15.0	1.48	-2.78	1.8	22.5
19	42	기타가죽	1.07	42.6	1.35	26.87	1.7	32.0
20	63	기타섬유제품	1.08	45.9	1.35	24.81	2.1	56.6

자료: World Trade Atlas

□ 수출관련 애로사항

- 파키스탄 시장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기타 서남아 시장에 비해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곤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상존, 온라인 무역 인프라 부족, 수출 지원제도 미비 등의 애로 사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수입 통관절차·비자 취득·L/C 개설이 비교적 쉽고, 주재국 수입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 바이어인터뷰 및 무역관 자료 종합

(2) 투자진출 현황

□ 우리기업 진출 현황 및 주요 동향

- (연도별·업종별)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파키스탄 투자진출 누적금액은 58백만불, 진출기업수는 누적기준 13개사로 53.8%가 제조업에 투자하였으며, 도·소매업 15.3%, 건설업 7.6%, 운수업 15.3%, 전기·가스업 7.6% 임.

<우리기업 파키스탄 투자진출 추이>

(단위 : 천불,개,%)

구 분	'09	'10	'11	'12	'13	누적
신고금액 (증감률)	22,589 (284.4)	37,841 (67.5)	30,587 (△19.1)	5,278 (△82.7)	5,869 (11.19)	102,164
투자금액 (증감률)	15,020 (252.3)	716 (△95.2)	32,756 (4,474.8)	4,795 (△85.3)	5,218 (8.8)	58,506
진출기업수	3	3	4	2	1	13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규모별·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53.8%, 중소기업은 23%, 개인기업은 15.3% 임.

<최근 5년간 파키스탄 진출 주요 한국투자기업>

(단위 : 천불, %)

연번	기업명	매출액	투자액
1	포스코	미공개	15,000
2	롯데제과	미공개	15,599
3	롯데케미컬	650,000	12,002
4	(주)금성	미공개	525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주요 동향

- 노무 환경, 최저임금 인상률 등
 - FY10에 정부부문 최저임금이 30.4% 인상된 이후 인상폭이 둔화 되었으나 FY13에 42.8% 증가함
 -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부부문 최저임금 동향>

(단위: 파키스탄루피 Rs)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4,600	6,000	7,000	7,000	10,000

*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환율: US\$1 = Rs 106)

- 파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 업무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공공 부문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해외 투자 성공사례

〈해외 진출 기업 개황〉

1. 기업명 : 롯데 PTA
2. 진출지역/진출연도 : 파키스탄 카라치 / 2008년 11월
3. 투자형태 : 지분투자
4. 투자규모 : 12,000천달러
5. 주요투자품목 :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화학섬유의 원료)

- 작성자 : 롯데 PTA 김정년 이사 -

○ 해외투자계기

롯데PTA는 주력산업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화학섬유의 원료) 사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PTA 제품은 화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국내의 화섬업체들이 중국 및 개도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선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공장의 신설 혹은 인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던 중 세계 최대의 코팅 생산업체인 AkzoNobel측이 주력사업분야가 아닌 PTA사업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이 파키스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에 이르는 시점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되었다.

○ 준비과정

파키스탄은 국가적 위험도가 큰 지역으로 공장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경제적 및 정치적 불안으로 외국기업이 떠난다는 상황을 알았을 때는 투자의 결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Risk 가운데의 기회요소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재 분석을하기로 하였다. 파키스탄내의 유일한 생산업체로 관세 및 운송료 등의 비용에서 수입산보다 우월한 경쟁력, 섬유산업의 성장이 9~10%로 견실한 점, 중동지역에서의 석유화학 원료의 확보가 유리한 점, 아울러 향후 상대적으로 PTA 생산이 부족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에서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의 기회요소를 확인하면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에 국가적인 위험요소를 감안한 최적의 가치산정을 통한 인수 그리고 인수후의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11월 Non-binding offer를 제출한 지 10개월만인 2009년 9월 AkzoNobel 측과 지분인수계약을 마무리하였다.

○ 현지네트워크 구축 에피소드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파견 주재원 3명을 선발하였으며, 약 3개월의 기간을 한국에서 파키스탄의 현지 상황 및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료를 검토 및 사전 Study를 진행하였다. KOTRA의 국가별 경제 및 무역동향 자료는 전반적인 부문의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카라치 도착후 호텔에 투숙한지 약 3일이 되던 날에 투숙하던 호텔에 파키스탄 정부측 인사의 경제인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와 함께 이를 겨냥한 탈레반의 테러 협박 Letter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긴급하게 그 기간 동안 카라치 시의 외곽지역 숙박시설로 이전하게 되면서 말로만 듣던 위험성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매일 약 50km 떨어진 공장으로 출퇴근을 함에 따라 실제로 좋지 않은 도로사정과 치안의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많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도착 한달 후에 겪는 라마단은 호텔의 식당들도 점심영업을 하지 않아 어김없이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떼웠으며, 업무협의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 한편에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파키스탄인의 생활에서 종교의 자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엄격한 종교규율로 인하여 여가문화가 거의 없으며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하루의 피로를 해소할 여유를 찾기도 힘들었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진행이 느리고 융통성의 발휘가 부족하며, 자료를 통한 보고 및 분석 보다는 구두로 진행하는 회의가 다반사임에 적응이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름의 Monsoon 계절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공장 - 호텔의 50km 거리를 빗물로 침범되는 도로 위로 아슬아슬하게 약 5시간의 여행이 되게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기도 하였다.

○ 애로사항 극복기

파키스탄의 경우는 IMF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외환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외환관리도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즉 기업의 경우 외화통장의 보유가 허용되지 않기에 환차의 관리를 위하여서는 자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의 경우는 원료의 구매를 거의 해외에 의존하다보니 환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국제가인 달러에 연동하고 매월의 루피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헷징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외화송금의 경우는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사소한 경비도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당한 송금임을 State Bank of Pakistan에 증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당사의 경우도 인수초기 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여유 자금이 있을시에 기존의 Loan 금액을 분할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분할상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여에 걸쳐 분명한 이유와 이러한 것이 결국은 파키스탄에 있는 당사에 유리함을 서면으로 여러차례 제시하고 방문 및 설득을 통하여 결실을 이루었다.

한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세제도는 매년 예산수립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명목세의 부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투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매번 법적 혹은 현지의 동업타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응하고 절충안을 찾아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Tax 의 환급 등 정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문의 행정처리는 굉장히 진행이 더디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행정적인 청원 등 별도의 해결책이 없기에 양쪽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독촉하여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번거로운 수고가 많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인력의 경우는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 및 엔지니어는 인근 중동국가로의 유출이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유능한 인력 혹은 주요 경영진 Level의 경우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임금의 지급과 함께 매년 약 10~15%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임금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놀라운 현실이기에 이러한 부문은 Consulting 및 동종업계의 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현실을 최대한 한국의 대주주에게 설명을 하여 반영하고 최대한 한국의 기업문화를 현지 경영진에게 이해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여 Gap을 좁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회, 주주총회 및 Corporate Governance 등의 규정이 너무나도 이상적인 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규정은 파키스탄의 엘리트들이 서구적인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 놓거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무실 밖의 어수룩한 파키스탄의 모습과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않는 상황이나 조심스럽게 최대한 현지규정을 준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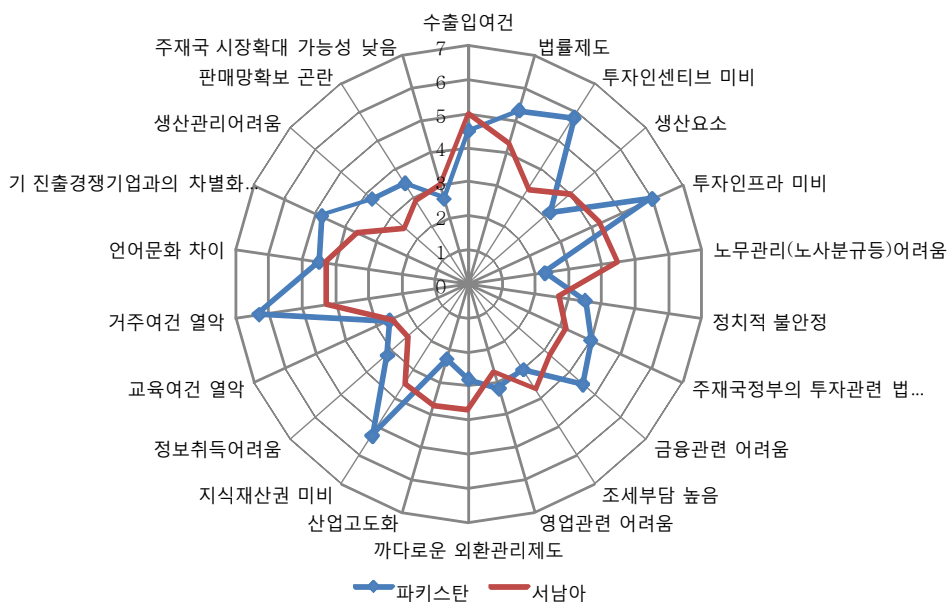
○ 기타 생생한 투자경험담

파키스탄의 경우는 희생정신의 발현을 찾아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즉 사회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어느 한 부문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희생으로 더욱더 값진 발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으나 파키스탄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러한 희생의 용납이 곤란하기에 좀 더 발전된 다음단계로의 진

일보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말이 다반사인데 이 의미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의견과 그리고 현재 그러한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모르기에 현재의 나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이 나라의 정치 및 경제상황으로 볼 때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즉 아주 Critical 한 부문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던 대책을 세우던 하는 것이 필요함을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다. 파키스탄에 오래 주재한 분이 언급하기를 파키스탄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라에서 확실한 것을 찾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투자진출 애로사항

- 파키스탄 시장은 기타 서남아 시장에 비해 투자인센티브·인프라 미비, 자금 차입 등 금융상의 어려움, 지식재산권 미비, 거주여건 열악 등과 관련 되는 투자진출 관련 애로 사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임금 및 지가 수준이 낮아 생산요소 항목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고, 노사분규 등이 적어 노무관리도 비교적 수월하고 환경규제 등 규제가 발달하지는 않아 투자기업에게는 유리한 환경임. 또한 주재국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기회 요인으로 파악됨



자료원 : 바이어인터뷰 및 무역관 자료 종합

다. 2015년 무역관 추진사업(잠정)

2015 서남아 전력 기자재 로드쇼

□ 추진 목적

- 서남아 전력 기자재 시장 진출
 - 서남아 지역 전력 기자재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 사업 개요

- 시기 : 2015년 5월
- 장소 : 카라치, 다카, 뭄바이
- 참가기업 : 한국(10개사), 파키스탄(100여개사등)
- 주요내용

시간	내용	비고
09:00 ~ 10:30	파키스탄 전력 기자재 시장 설명회	WAPDA, KESC 등
10:30 ~ 12:30	한국 중소기업 기자재 상품 설명회	한국 참가기업 약 10개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 18:00	1:1 상담회	한국 참가기업 및 파키스탄 등 서남아 참가 바이어

* 자료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Tel	Email
자카르타 무역관	이동훈	92-21-3280-3085	leedh@kotra.or.kr
본사 신흥시장팀	이미경	02-3460-7215	mkleee@kotra.or.kr